

☞ 보도일시: 즉시 가능

❖ 고용노동부 통영지청

거제고용복지+센터 소장 윤철민(055-730-1916)

☞ 총 4쪽(사진 포함)

주무관 조영희(055-750-1902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

-고용위기지역에서 22개 기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례-

- 고용노동부 통영지청(지청장 조우균)은 11월 28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“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”에서
-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에서 거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22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 개장한 H리조트에 1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.

### ❖ 「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」

- 개최목적: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각 기관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-확산(주관 인사혁신처)
- 일시/장소: 2018.11.28.(수) 14:00 /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
- 참석: 관계기관 공무원, 일반 국민 등 2백여명
- 시상: 서면(1차), 전문가 심사(2차)를 거쳐 선정된 중앙부처, 자치단체, 공공기관 3개 분야 우수사례 12건

- 이번에 수상된 사례는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여파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경남 거제에서 정부기관·지자체·교육기관 등 22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183개 관광리조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 지원한 것이다.
- ‘18.10월 개장한 H리조트(거제시 장목면 소재)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에게 채용에 앞서 직업훈련-채용응시-면접-최종합격-OJT에 이르는 일련의 채용과정을 지역 기관들이 제공하였다.
- 조선업 불황여파로 과거에 비해 근무인원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, 경남 거제는 우리나라 조선업 종사자(108천명)가 가장 많이 근무(43천명)하고 있어 여전히 조선1번지이다.
- 경남 거제는 ‘18년도 상반기 실업률이 7.0%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는데, 무엇보다 그간 지역경제를 이끌던 조선업 불황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.
- 조선업 종사자 감소와 함께,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 그리고 장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, 특히 서비스직의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.
- 이번에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대형리조트 개장을 계기로 서비스직 일자리에 힘을 모으게 된 배경이 이 같은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 일자리 구조를 바꾸어 보자는 취지였다.
-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구조가 개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.

□ 지난 4.3 사무직원 5명 모집을 시작으로 리조트 개장까지 총 28회 채용행사, 17백명 참여, 5백명 면접을 거쳐 183명이 리조트에 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다.

○ 이번의 협업사례는 기존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던 채용대행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,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역량을 기관에서 직접 인력양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.

○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직장내 적응을 위한 OJT훈련까지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례들과 차별성도 보였다.

□ 경남 거제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종사자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.

○ 이번 처음 성과를 거둔 거제지역 22개 일자리 단체는 불황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제도와 지역기관별 장점을 모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.



[ 사진 설명 ]



2018.11.28.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“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”에서 우수상(국무총리상)을 수상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거제고용복지+센터 윤철민 소장(☎055-730-19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